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동생의 수술비를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은 작년 7월 설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10년간 혼자 살아온 동생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는데 설암으로 인해 실의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울산대병원 사회사업실의 도움으로 지원을 받아 무사히 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동생은 몸이 힘들어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검사에서 다시 재발했다는 소견을 듣고 가족들 모두 크게 낙심했습니다. 재발이라는 선고도 청천벽력 같았는데, 다시 수술비와 치료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산재단에서 지원해주셔서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퇴원 후에 건강을 회복하면 도움을 주신 재단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동생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저도, 형제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박정현 드림




아산재단은 'SOS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아산재단의 도움으로 꿈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네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지만, 정년퇴직 후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며 우리 가정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혼자 생활해 왔지만 작년 1월 뇌경색과 관절 질환이 악화되어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기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곧 정부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됐고, 시청 사회복지사님의 도움으로 올해 LH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에서 살아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이 하나도 없어서 막막했는데, 아산재단의 도움으로 세탁기와 침대, TV 등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산재단의 지원에 눈물이 날만큼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아산재단의 모든 분들이 부디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고마운 마음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김진섭 드림**

